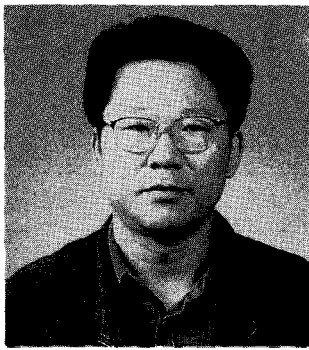


# 이상징후 발견하면 이미 중증

— 부제병, 뇨석증, 뇨폐와 방광과열을 중심으로 —



유 일 준  
천안 유일동물병원장

이번호에는 사육가의 의견과 수의사의 진료 현실사이에서 오는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고 부제병, 뇨석증, 방광과열에 대하여 사육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사슴의 진료는 일반가축과는 달리 야성때문에 진찰과 진료에 애로점이 많다. 소, 말, 개 등 일반가축은 사슴에 비하여 보정이 쉽고 접근이 용이하나 사슴은 본래의 야성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주인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증상과 현시점에서 망진, 그리고 수의사의 치료 경험에 의해 마취제의 종류나 양, 투약해야할 약제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부터 만나게 된다.

이때 치료해야 할 사슴의 건강지수는 마취를 어떻게, 어느 종류의 약으로, 얼마의 양으로 할 것인가부터가 어려운 문제이다.

몰이장이 있다하여도 요즘처럼 녹용이 자라는 중에도 몰이장안에서 「후다닥」거리다 녹

용이 다칠 수 있어 이 또한 여간 망설여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왕진 요청에 의해 왕진을 가보면 몰이장이 방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몰이장이 아예없는 곳이 사슴사육 농가의 절반쯤 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또는 야간의 난산시에도 조명이 거의 되어 있지 아니하여 더욱 난감한 때를 종종 만나게 마련이다.

이런때는 본인의 경우 써치라이트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써치라이트도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이럴때는 궁여지책으로 후래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다. 때로는 장거리 왕진시 출발은 낮에 하였으나 고속도로 등의 사정으로 해가 진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 가뜰이나 늦어 미안한 마음을 가진 수의사에게는 고역이며 사슴 주인에게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아픈 사슴의 특징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보자.

사슴은 녹각기를 제외한 시기엔 항상 연약하고 소심하며 24시간 내내 주위의 위험 사항을 경계해야 하고 위험 상황에 당면하면 줄행랑을 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어서 질환이 있거나, 외상, 골절상이 있는 경우에도 개의치 않고 도망을 하게 되어 더욱 악화시키곤 한다.

하물며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슴장에서는 골절이 되어 뼈가 피부밖으로 빠져 나와 있어

도 빠져나온 뼈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마치 다치지 않은 것처럼 딛고 다니며 당황하면 더욱 날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선 안정시키고 안정후에 마취를 해야 한다. 한창 흥분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마취는 막바로 마취사고를 야기 하고야 말기 때문이다.

하물며 골절에서도 이 모양인데 다른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사슴이 아프구나 하고 주인이 발견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사슴은 이미 병세가 중증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야생성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함께 사육중인 다른 사슴이 다가오면 전혀 안아픈 사슴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우리에 여러마리의 사슴을 사육할 경우는 아픈 사슴의 발견은 더더욱 어렵고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인은 2월에서 5월경까지 많이 발생하는 질병중 실제로 3월과 4월중에 진료했던 부제병, 뇨석증, 뇨폐와 방광과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함께 돌이켜 보고자 한다.

**부제병**

공주시 S면에 엘크 수컷1두, 암컷 성목 4두, 자목 3두를 사육하고 있는 J씨는 착실한 기독교 신자이신데 올해 5세된 유일한 종목이 좌측 앞다리를 절룩거리며 들었다 내렸다 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먹는 것은 약간 줄었고 등을 구부리고 계속 아위어 가며 자주 눕는다고 했다.

주인의 말로는 언땅을 잘못 디셔서 그런것 같다고 하여 주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제병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뼈어서 그럴거라고 한단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발목이 약간 부어 올랐다고 하면서 우선 왕진비부터 물으시더니 왕진비를 말씀도 안드렸는데 우선 싸게 해달라고 하신다.

사육장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부제병 치료 약제와 수술기구 삭제기구 산소통 등을 챙겨 길을 떠났다.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진눈개비가 바람과 함

께 몰아쳐 운전애를 먹었다.

목장에 도착해보니 사슴장까지 차량이 접근할 길이 없어 쫓차를 4륜 구동으로 해서 발고량이 높은 발을 가로 질러 사슴장에 바짝 대놓고 사슴을 관찰해보니 약간 여위었고 왼쪽 앞발을 절룩거리고 서있을 때는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한다. 그러면서도 철조망을 들이 받으며 공격자세로 위협을 한다.

어쨌든 잘 생긴 수컷이다. 그러나 며칠동안 눈발이 날려 철조망쪽의 2개면이 엄청 질퍽거리고 발목까지 빠지는 바람에 아프다는 발목의 관찰이 어려웠다.

주인은 위와 같은 증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어떤이는 지속성 항생제 한번만 놔주면 싹 낫는다는 사람, 내버려 뒀도 된다는 사람, 진짜 부제병이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람 등이 있는데 어느말이 맞느냐고 물으신다

수의사인 나는 아래와 같이 대답해야만 했다.



△ 부제병이 심해 양 발굽이 빠져버린 사슴

『부제병은 소, 말, 염소, 돼지, 사슴등 짐승의 발굽에 충격이나 상처가 생긴곳에 재수있게 부제병균이 침입하여 발굽이 속으로 썩어들어서 또는 농후사료의 과다급여, 사육환경의 급변화, 장거리 수송등 수입시 생기는 병인데 이균은 산소를 싫어해 지꾸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데 통증이 워낙 심해서 사슴이 마르고 뒷발에 생기면 교미도 못하는 수도 있고 두발 이상이 걸리면 아주 심하여 견지 못

하며 다리에 마비가 와서 기립불능 상태가 되기도 하고 욕창도 생기며 발굽이 길어지거나 비틀리거나 발굽이 빠지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 패혈증으로 전이되어 사슴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증상은 앞발에 문제가 있으면 앞발을 뒤로 뺀고 뒷발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발을 뺀으며 등을 구부리고 치료시기를 놓쳐 버리면 발굽이 변형되어 매우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병으로 사슴에서는 난치병중 난치병이라 수의사들도 때로는 치료를 기피하는 병입니다. 치료기간 또한 길어서 2주일에 한번 꼴로 3~4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제는 지속성 항생제, 진통해열제, 썰과제, 유산동, 과망간산카리, 소염제가 쓰이며 발굽이 빠지는 경우는 석고 붕대를 하거나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발굽에 나무굽을 붙여 주기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니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큰일났네』하십니다.

『우리 사슴을 고칠 수 있겠소?』라는 물음에 『마취후 검사해야 예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의 사슴 잘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원장님 이름도 납니다. 그리고 싸게 해주쇼. 저는 녹용도 잘 못팔아 돈도 없습니다.』

주인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 마취제 3cc를 주사하니 20분후에 곱게 눕는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김수의사는 눈을 가리고 4지를 보정하고 깨끗한 물로 발굽을 씻는다.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보니 말랑말랑하다.

삭제기로 두어번 깎아내니 퍽 소리와 함께 희색의 농이 흐른다.

잠시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진료광경을 지켜보시던 주인이 『이게. 무슨 냄새야』 하신다. 정말로 대단한 악취가 풍긴다.

조심스럽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데 피가 흐르고 사슴이 발을 움직인다. 그때마다 김수의사는 능한 솜씨로 부분 마취제를 도포한다.

『호되게 아픈가 보지요? 많이도 썩었네. 사람이 미련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데 저렇게 썩은 줄 누가 알았나! 말이나 해야 알지』라고 애처로운 심정을 주인은 토로한다. 흐르는 피를 소독된 탈지면으로 닦으며 환부를 정리해보니 발바닥 반이상이 날아가 버렸다.

상처를 다시 소독하고 지속성 항생제 썰과제를 듬뿍뿌리고 유산동과 과망간산카리 항생제를 두툼한 탈지면 위에 얹어 붕대를 감아주고 O·P·P 테이프로 다시 감아주니 나의 허리가 아픈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수의사는 특수접착제를 조제하고 반대편 발굽을 특수그라인더로 매끈하게 정리하고 그 모양대로 나무굽을 만들고 있다. 허리를 펴고 평소 습관대로 담배를 피워물으니 그맛이 보통이 아니다.

나무굽은 발굽을 2cm정도 높여주어서 부제병이 있는 발굽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부착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그 효과는 대단하다.

이 나무굽은 보통 40일정도 후에야 닳아 없어진다.

이렇게 하여 발굽을 치료한후 근육주사로 필요한 주사를 한후 진료장비를 정리한후 보정되었던 4지를 풀어주고 회복제 5cc를 정맥 주사하고 약 1분후 눈을 가렸던 수건을 제거하자 벌떡 일어난다. 치료를 한 발은 부분마취가 된 상태여서 걸음걸이가 치료전 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2주일 간격으로 3번정도 더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치료는 시작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이제 반치료 한 것입니다.』 첫치료후 수의사로서 오는 느낌은 『완치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므로 희망적인 농담을 드렸더니 『두번이든 세번이든 치료나 잘 해 주세요』를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사슴은 1월말부터 2주간격으로 총 4회를 치료하여 완치되었고, 2월24일 낙각되어 현재는 소담한 녹용을 머리 위에 얹어놓고 있다.)

### 노석증

노석증은 거세된 숫소의 중요한 질환이지만 발생원인은 복잡하다.

사슴에서는 늦겨울과 봄철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상하게도 녹용생산이 우수한 사슴이나 종록에서 더 발생빈도가 높다.

노석의 핵은 과사조직이나 탈락상피이고 여기에 비타민 A의 부족과 에스트로젠의 함량이 많은 사료가 먹여질때 노석증은 심해진다.

뇨결석은 주로 무기질이 오줌 용액으로 부터 침전하여 생기는 것이지만 유기질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무기질에 의한것은 생김새가 뾰족뾰족한 결정성이 많고 유기질에서 유래된 뇨결석은 덩어리 형태가 많다.

뇨결석은 물의 급여가 문제가 될때 예를 들어 물이 얼어버리거나 물이 떨어졌을때 이때 설상가상으로 대량의 미네랄을 함유한 농후사료가 다급되면 발생빈도는 더욱 높아진다. 칼슘과 인의 불균형도 관련이 큰것으로 판단된다.

폐쇄성 뇨결석증은 요도를 폐쇄하여 오줌을 정체시켜 방광의 과도한 확장을 일으키고 요도를 찢거나 요도 파열을 일으킬수 있고 최악의 경우 방광의 파열로 인해 사슴이 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폐쇄성 뇨결석증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뇨도 중간 (항문과 고환의 중간지점) 을 절개하여 방광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방광내의 오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인데 이때에 음경쪽으로도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본인은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7마리의 뇨석증을 치료하여 6마리는 우수한 치료 효과가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D시의 W목장 종록은 방광파열로 폐사하고 말았다.

여기서는 경북 M시의 M목장의 경우와 D시의 W목장의 사례를 적어 볼까 한다.

3월의 막바지에 M목장에서 저녁때 아래와 같이 전화가 왔다.

5세된 엘크의 표피부근이 약 열흘전부터 나팔처럼 부어올라 있고 오줌에 피도 섞여서 방울방울 떨어지고 농후사료나 조사료도 잘 안 먹더니 살이 많이 빠졌고 이틀전부터는 음경도 밖으로 밀려 나왔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사슴은 종록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기를 주고 사들인 녀석으로 사슴사육 12년에 이런것은 처음이라고 하며 내일 아침 일찍 왕진을 와 달라고 해서 저녁에 여러가지의 경우를 가정하여 진료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퇴근했다.

해가 동트기전에 아파트를 출발하여 목천

톨게이트를 목천에둔 지점에서 핸드폰이 울려 받아보니 온양쪽의 한우목장에서 난산이란다. 하는수 없이 차를 돌려 온양쪽으로 향했다. 어미소의 산도검사를 해보니 송아지는 지독한 기형의 아까바네 였다.

송아지는 태어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라고는 0%, 어미소의 안전을 위해 약전고투 끝에 진료를 마치니 시간이 3시간 가까이 소비되었다.

너무 늦었다는 느낌에 자동차의 속도를 다시 높여 보았다. 언제 M시를 다녀오나?

이번에는 조치원 톨게이트로 진입키로 했다. 출근시간이라 차가 엄청 정체되고 있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 뇨석증으로 표피가 나팔처럼 부어 있고 뇨석이 팽차 있다. 주먹크기만한 뇨석을 필자가 제거하고 있다. 이 사슴에선 주먹만한 크기의 뇨석이 서너덩어리 더 나왔다.

내용인즉 『여기 M시인데 아침에 목장에 가보니 사슴의 음경이 밤사이 들어 갔으니 오지말라고 하신다.』

짜증이 났지만 오지말라니 갈 수는 없다. (송아지의 난산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도착했을텐데....)

오늘은 웬지 일의 아구가 안맞는 날인가 보다.

3일후 M시의 M목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원장과 직접 이야기 하겠다는 메모가 업무일지에 적혀 있었다.

아마도 전화를 받는 상대가 여성이어서 내용을 이야기 하지 못한것 같았다. 전화를 해보

니 꼬추가 다시 빠졌는데 이번에는 더 커졌다는 것이다. 물론 표피부분은 더 부어올라 있고 안먹고 오줌은 더 안나오고---

김수의사와 함께 경북 M시에 도착하여 전화를 드렸더니 ○○주유소까지 마중을 해주시는 주인이 고마웠다.

새로 신축한 깔끔한 중규모의 목장이었는데 마침 인부를 동원하여 사슴목장을 대청소 중이었다. 꽃사슴이 대부분이다. 개논에는 X 만 보인다더니 수의사인 내겐 다른 환축도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의 병력은- 어느날부터 먹이와 물을 덜먹고 변의 크기가 작아지고 배에 힘을 자주주며 활동이 줄어들고 꼬추주위가 갑자기 부었다가 부기가 내린듯 하더니 그후는 계속 부어있는것 같다 한다.

나이는 5세이고 종록으로 쓰기위해 3개월 전 새로 구입했고 3월2일 낙각되었는데 녹용의 성장이 중지 되었다고 하신다.

『고칠수 있겠습니까? 종록이 될 수 있나요?---』 주인은 걱정이 대단하다.

진료장비와약품, 기구를 준비해 놓고 마취 후 4지를 보정, 머리에는 베개를 높이 베어 주었다. 침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심장 청진을 마치고 나서 꼬추부위를 덩석 만져보니 이게 뭐야? 가래떡 굵기보다 더 굵은 노석이 딱차 있지 않은가!

힘을 주어 밀어내니 3~5cm길이로 부서져 나오는데 겉부분은 피가 많이 묻어 나온다. 힘 끝쳐다보니 주인의 표정이 무척이나 긴장되어 있고 두어발작 뒤에 주인 아주머니도 목을 쪽 빼고 관찰하시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무안하신킨지 사슴장 밖으로 나가셨다. 노석에 의해 꼬추도 상처를 받았고 표피부분은 아주 넓은 부분이 괴사(썩음)돼 있어 상처가 대단하다.

꼬추부위를 만져서인지 사슴이 자꾸 움직여 이제 막 자라는 녹용이 다칠까봐 머리도 밧줄로 고정했다. 노석을 거의 제거했을 무렵 김수의사가 손을 댈더니 사진기를 들이대고 3~4

장 사진을 찍는다.

『김수의사, 사진을 찍으려면 진작 찍어야지 노석이 다 부스러 졌잖아. 노석크기가 제대로 안 나올걸---』

노석제거- 과산화수소 소독- 베타딘 소독- 표피등의 괴사조직제거- 노도에 약물주입- 괴사조직 봉합- 지속성 항생제 주사- 지혈제, 소염제, 이뇨제 주사- 사용한 진료장비 정리해서 밖으로 내놓고 암모니움크로라이드 투여- 4지보정, 머리부분 보정해제- 정맥에 해독제주사(수건을 떨어지기 쉽게 해놓고).

깔끔하게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주인과 수의사의 바램---

그러나 위의 바램은 헛것이였다. 일어나려고 하다 휘청거리면서 녹용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많이 찢어져 피가 흐른다.

주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다시 마취를 하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인데 이 우발사고를 처리하는데에 본 병인 노석증을 치료하는 시간보다 더 걸렸다.

일을 마치고 주인께서는 때지난 점심을 멧진 시골가든에서 사 주셨다.

장시간 긴장한 뒤라서 돌아올때 운전을 김수의사가 도맡아 했다.

아마도 김수의사는 더 피로할는지 모른다. 그래도 김수의사는 나를 원장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노폐의 방광피열

이 부분은 임상 수의사로서 감춰두고 싶은 이야기이므로 독자들께서는 수의사의 입장이 되어보고 사슴목장의 주인도 되어 이해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는 바이다.

97년 4월 둘째주 어느날 오후 충북 ○지역에 있는 사슴목장 주인으로부터 사슴진료를 의뢰받고 왕진해보니 여러마리의 환축이 눈에 들어왔다.

휴일 오후라 그런지 목장에 주인은 없었고 관리인만 있었으나 사슴 숫자가 워낙 많아 본

인은 생각하기를 사슴주인은 사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리라고 짐작하고 각서를 받지 않고 우선 증상이 가장 심각한 새마리를 진료하였는데 두마리는 부제병이 심각하여 발굽이 빠져 있는것도 있었다. 김수의사와 함께 두마리는 P제품으로 마취했고, 나머지 한마리는 상당히 커보이길래 5cc를 더 사용했다.

극심한 부제병 상태여서 걱정도 되었지만 수의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진료했다. 발굽이 빠진 녀석은 약 넣고 탈지면, 붕대, O.P.P테이프로 감아주고 다른 발굽에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나무신도 신겨 주었다. 치료후 해독제를 정맥주사하니 모두 잘 일어났다. 그런데 두번째 치료한 녀석이 다시 누워있는 것이 발견되어 접근해보니 안 일어난다. 예감이 좋지 않아서 하트만수액을 정맥주사하고 영양제를 함께 주사했다. 날도 어두어졌고,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것 같은 예감도 있어 관리인에게 자주 관찰해 주실것을 부탁하고 돌아와 늦은 시간이지만 주인과 전화를 통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물론 한녀석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늦어 더 돌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아침 무렵엔 일어나리라 예상된다고 말씀 드렸다. 그러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이튿날 아침은 전남 화순에서 9시반에 사슴왕진을 하기로 약속돼 있어 5시30분에 집을 떠났다. 서대전과 논산고속도로 중간에서 핸드폰이 울려 받아보니 어제밤에 일어나지 못한 사슴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차를 되돌리고 싶었으나 이미 죽었다고 하여 맥도 빠지고 죽은 것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으므로 오후에 들리기로 하고 계속 화순으로 향했다. 마음은 온통 ○지역에 가 있다. 화순에서 4마리의 부제병을 치료하고 나니 화순을 출발했을때는 아주 늦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낮에 한마리가 또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광주를 지날무렵 이미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여간 당황되고 낙심천만이 아니었다. 벼라별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정말 임상업무

를 때려치우고 싶을 뿐이었다. 늦은 후회지만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미련도 있었으나 사슴주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대책이 서질 않았다.

사고난 목장에 도착하니 여간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



△ 뇨의 과도한 충만으로 파열된 방광. 파열된 방광은 염증도 심했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방광.



△ 방광파열로 복강내에 오줌과 파열시 출혈된 혈액.



△ 뇨폐로 정상크기의 2배이상 부어오른 신장. 칼로 지른 부분에 오줌이 고여있다.

화기난 주인께선 변상을 요구하셨고 나는 나의 실수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낮에부터 못일어나는 사슴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나흘후 그 한마리마저 정성드린 보람도 없이 죽고 말았다.

주인은 주인대로 속이 상할대로 상하고 나는 내대로 심신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생각 저생각 하다보니 내자신이 탈진되어 이틀동안 눕고 말았다.

그러나 수의사를 하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려니 하고 마음을 놓쳐먹고 다시 일하기로 했다.

다음날 오후 대전에 있는 K씨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즉 10여세된 엘크수컷이 먹이도 거의 먹지 않고 배뇨를 못하는데 이 사슴은 녹용 생산량이 매년 20kg 이상되는 최우수 사슴이라서 꼭 살려야 한다며 왕진요청을 받았다.

목장에 도착하여 사슴을 살펴보니 덩치도 크고 녹용도 대단한 굵기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소변은 3분동안에 20방울 미만의 수로 떨어질 뿐이었다. 그래도 오줌을 눕고자 계속 힘을 주고 있다. 목장에는 이 사슴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서너명이나 함께와 계셨다.

뇨석증에 의한 뇨폐, 아니면 방광마비, 또는 극심한 요도염증 하나 또는 복합증상이라고 판단되었다.

주인의 이야기로는 약 1주일전부터 그런것 같다고 한다.

미취후 직장 검사를 해보니 방광은 무척 팽만되어 있다.

요도에 요도카테터를 삽입해 보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항생제, 이뇨제, 소염제, 진통제, 암모니움크로라이드 등을 투여후 해독제를 사용했다. 금속탐지기도 동원해 보았다.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으니 주인도 수의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요도를 절개하여 방광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오줌을 배출시켜야 하나 워낙 거물급 사슴이

니 선뜻 시술을 시행하기도 어렵다.

더우기 ○지역 사견도 있는지 수일밖에 안되어서 자라보고 놀란기슴 솔뚜껑 보고 놀라는 심신상태였다. 실패할 경우를 생각하니 자신감은 자꾸만 오그라들기만 한다.

주인과 속의 끝에 하루나 이를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돌아오는 차량안에서 김수의사는 빨리 뇨도수술을 하여 배뇨시키는 것이 좋을텐데 왜 수술을 안하느냐고 하며 평소 원장의 신속한 의사 결정 스타일은 어디갔느냐며 빨리 수술을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워낙 거물 사슴이라서---

다음날은 전날보다 적은량의 마취제로 마취를 했다.

직장검사 결과 방광은 여전히 팽팽함이 대단했다. 이런 상태를 파동감을 이용해 주인에게도 확인해 드렸고 직장 검사를 주인이 직접해 볼것을 권장했으나 주인은 하지 아니했다.

투약은 어제와 비슷했으나 5~6ℓ의 물에 암모니움클로라이드를 개기구와 식도카테터를 이용하여 위에 직접 넣어준 것이 다를 뿐이다.

주인과는 오늘까지만 기다려보고 내일에도 차도가 없으면 최후수단으로 뇨도 절개수술을하기로 하고 목장을 떠난 것이 2시30분 경이었다. 오늘도 김수의사는 왜 수술을 망설이냐고 성화다.

나의 머리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돌아오는 길에는 밀린 왕진을 해야만 했는데 6시30분경 사슴목장의 H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치료하던 사슴이 숨을 헐떡이고 통증을 무척이나 호소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예감이 안 좋다고 하신다.

그후 30분 간격으로 서너번 통화한 후 다시 왕진을하기로 하고 조명기구와 진료장비를 재점검하여 W목장에 다시 도착하니 낮에 함께 있던 분들이 그대로 계신다. 서로 침묵만 지키고 있다.

주인의 이야기로는 원장도착 직전부터 통증 호소를 중지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조명기구는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이밤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해야하나?

수술을 위한 마취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마취제를 정상용량의 반이하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지는 않을까?

도대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던 분들과 협의한 결과 내일 아침 6시경부터 수술하기로 했다.

이 결정을 내린 시간이 밤 11시30분.

오늘저녁 나는 수의사로서 결정할 힘은 진정코 하나도 없었다. 무능한 수의사일 뿐이었다. 여관에 들어서도 잠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나의 진료케이스에서 이처럼 고심해 본 것은 생전 처음이다. 물론 ○지역의 사고가 나의 머리를 더욱더 무겁게 했으리라.

모닝콜에 눈을 떴을때 또다시 마음이 무겁다 못해 멍하기까지 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해장국을 먹었다. 약속시간보다 조금늦게 목장에 도착해 보니 사슴은 네다리를 뻗은채 호흡을 멈춘 채였다. 어떻게 해야하나? 한참동안 멍할수 밖에 없었고---

어제저녁에 마취사고가 예상되더라도 수술을 했더라면---

온갖 욕을 먹고 수모가 있을지라도 수술을 했어야 진정한 수의사인데 내자신의 안전에만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닐까?

평소의 사슴진료에 대한 소신과 열정, 그리고 배짱은 워낙 거물급이었던 이 사슴 앞에선 나는 소인국의 소인이었다. 만가지의 아쉬움만 있을 뿐이었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3시경 외마디 소리를 질렀고 아침 5시30분까지 일어났었다고 한다. 주인은 수의사인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수의사인 나도 주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오로지 죄송할 뿐이었다.

나는 여기서 W목장의 주인에 대해 짚막하

게 꼭 밝혀 적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중에서도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사슴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내가 수의업무를 마치고서도 존경해야 하며 매매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나지만 정말 훌륭한 사슴을 만나면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12시경 개복을 해보니 복강내에 소변이 가득차 있고 방광은 마치 바람을 많이 불어 넣은 풍선이 터질때처럼 뻥 터져 쪽 갈라져 있었다. 방광에는 출혈도 있었고 염증도 있었다(방광을 막고 있었던 물질은 못찾음). 요도를 절개해 보니 요도 전체가 염증으로 막혀 있었고 부종도 심했다. 하여튼 이 사슴을 치료하면서 본 수의사는 너무나 많은 한계와 벽을 실감할 수 있었고 본인의 모자란 실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문의전화: 0417-565-5297)

## 자동차를 구입할때 알아야 할 일

### 임시번호판

임시번호판은 차를 받을때 달려나오는 번호판을 말한다. 이때 임시 운행허가증을 받게 되는데 임시운행허가기간은 10일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정식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만일 계속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불법이 된다. 이때 지불해야할 과태료는 200만원이하 정도이므로 일주일 내에 꼭 번호판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등록신청

주소지의 자동차 등록관청

### 준비할 서류

신규등록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자동차제작용, 수입면장, 자동차확인검사증,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공채매입필증